



**남원 동충동, 장애인 통합돌봄 연계 등 협약**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9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은웅)과 장애인 통합돌봄 연계 및 이동행태방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충동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거동 불편 및 위생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 협력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행태방 운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위기 상황 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라 동충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대호 대경산전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대경산전 김대호 대표(이사)가 모교의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00만원의 발전기금 기부했다.

전북대는 지난 8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대호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금은 전기공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쳐온 김 대표가 모교와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뜻이 담겼다. /김재훈 기자



**전주스마일로타리, 삼천2동에 반찬 기부**

국제 로타리 전주스마일로타리클럽(회장 김진영)은 지난 8일, 봄철을 맞아 삼천2동 주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나눔냉장고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복약구 30인분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웃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스마일로타리클럽 김진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과 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트가 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 김성근 동장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은 전주스마일로타리클럽과 같은 지역 단체의 따듯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소중한 후원 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주스마일로타리클럽은 지역 대표 봉사단체로서 사랑나눔 물품 봉사,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밀면천을 후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강화**

국민연금-사회보장정보원 '맞손' 데이터 연계·공동연구 추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금 및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9일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공동연구, 학술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 역량을 결합해 복지정책 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 자원 교류 및 교육을 통한 상호 전문성 강화 △비밀이 허용되는 범위 내 정보 공유와 기관 운영 시 상호 활용 △공동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데이터 분석과 연구 활동 성과의 공유·확산 등 연구 협력 전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상근기자



특히 데이터 기반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두 기관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내일 남원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주관으로 '소리려 깨닫고, 글로 지어, 붓으로 새기다'라는 주제의 전통 교육의 명맥을 잇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인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이 4월 11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강경·휘호 예선, 제술 본선이 진행된다. 9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윤현관에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회는 강경(글 읽기), 제술(글 짓기), 휘호(글 쓰기) 등 3개 대회 14개 부문으로 진행,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총 1,500여 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며,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을 포함한 300여 종의 시상이 수여된다.

행사 관계자는 행사 개최에 대해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읽고 생각하고, 쓰는 전통 서당의 배움 방식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서 4개 사무소·13명 수상**

사무소 부문 - 부안농협·해리농협 등

개인 부문 - 순창농협 김미진 과장 등 영예

전북농협이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4개소와 개인 부문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생명보험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8일과 9일 인천 파라디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지역 농·축협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생명보험 판매 실적을 거둔 농·축협 사무소와 직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은 △부안농협 △순창농협 △해리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에서도 총 13명이 수상했다. 은상은 김미진 과장(순창농협)이 차지했으며, 동상은 최혜경 지점장(전주농협)과 김수경 지점장(남원농협)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허창록 과장(부안농협)과 김희영 과장(정읍농협)이 수상했으며, 헬린지사는 김은영 과장(부안농협), 임연숙 과장(해리농협), 김민정 과장(정읍농협), 최미경 과장(전주농협), 이하나 계장(해리농협), 홍진이 과장(해리농협), 이화 팀장(익산예농협)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상품 스타상은 박은영 과장(구이농협)이 수상했다. 학



습조직 부문에서는 전주농협 '전주블루드래곤'이 선정돼 조직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농협 최혜경 지점장은 올해까지 총 7차례 연도대상을 수상하며 전북지역 대표 금융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남원농협 김수경 지점장은 3년 연속 수상 정읍농협 김희영 과장보와 지리산농협 홍진이 과장대리는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지광주 전북총국장은 "이번 연도대상에서 전북 농·축협이 보여준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축협의 성장과 조합원 동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울 상반기 완주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 개최**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완주군내 지역농협은 지난 7일 범농협 상생·발전을 위한 '2026년 완주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계통 조직 간 상생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협의 균형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발전사업 발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완주=염재복기자

**해리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그룹별 2위' 수상**

개인 부문에서도 이하나 계장 '헬린지서'

전북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인천 파라디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제38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그룹별 2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또한 직원 개인부문에서도 해리농협 심원지점 이하나 계장이 헬린지서를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김갑선 조합장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금동, 삼성스토어공설점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8일 '삼성스토어 공설점' (대표 김경찬)에 착한 가게 34번째 업체로 선정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삼성스토어공설점은 지난해 10월 오픈과 함께 남원시에 전기장판 66개(900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한 남원에서 유일하게 남원사랑카드 및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였으므로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경찬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김봉래 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가게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진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 제18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내달 14일까지 6주간 운영

기후변화 이해·대응 등 강의

제18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이 9일 오전 9시 진안군민자치센터 3층 강당에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동창읍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장,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 이하 용담호주민협의회)가 주최하는 용담호 환경대학은 2009년부터 올해로 18번째 운영 중으로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고, 지속적인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추진을 위한 주민 의식 확산을 위해 매년 30여명의 지역사회 환경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 환경대학은 18번째 신입생을 맞이해 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6주간 환경 분야 교수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환경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와 주민실천방향,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 △친환경 환경 비누만들기 체험 등 주민의식개선에 지역사회의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정길 용담호주민협의회장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진안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1급



수를 유지해 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곳에서 배우는 지혜를 바탕으로 진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라며, 군에서도 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양옥(스파치 전담교수, 한국스파치운동협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전주매일 부사장) 빙모상= 별세일: 8일, 발인: 10일, 빈소: 동전주장례문화원, 연락처: 050-71338-4444, 010-7305-5665 (직통)

\*마음 전할 분: (신할: 132-120-419171, 김양옥)

**알림**

▲김강주 제10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식= 일시: 1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립군산대 아카데미홀